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3.2.13.(월) 10:30, 구병삼 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통일부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10시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국회 본회의에 참석 중이고, 내일도 10시에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장관은 오늘 13시 30분에 강원도 춘천시 강원연구원에서 개최하는 '접경지역 발전전략 DMZ 포럼'에서 축사를 할 예정입니다.

장관은 수요일에는 국회 통일외교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남북이산가족협회가 북한 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서 방북 신청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신청 절차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사실관계 확인 우선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2월 10일에 언론에 보도된 이산가족 관련 방북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만, 초청장을 발급한 북한 측 기관은 현재까지 우리 부가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 측 초청 기관의 성격과 신뢰성, 그러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타 방북 신청 자체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인 만큼 북한 측의 초청장을 발급한 기관과 같은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북측 초청 기관이 정확하게 어디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방북 신청을 한 이 이산가족협회가 예전에 실제 이산가족과 관련해서 방북을 한 전력이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초청한 기관 자체는 말씀드린 대로 방북 신청 자체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라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 어렵고 구체적인 초청 기관을 밝히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이산가족협회는 민간 차원에서 이산가족 교류, 즉 생사 확인이나 서신 교환 등 이러한 이산가족 교류 주선을 목적으로 2012년도에 설립된 통일부 소관의 법인입니다.

<질문> 통일부는 지난해 9월에 이산가족 당국자 회담을 북측에 제안한 바 있는데요. 현재 그러면 남북 당국 차원에서는 이산가족 관련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내용인데요. 노동신문 오늘 1면 내용을 보면 인민군

대에 많은 군중, 병중 부대들이 확대 개편됐다면서 개정된 군기들이 열병식에서 공개됐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 열병식 사진이나 영상을 볼 때 어떤 부대와 군기들이 개편됐다고 통일부는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작년에 장관께서 이산가족에 대해서 북한에 제의했던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협의 사항이 현재까지는 확인해 드릴게 없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하신 북한의 부대 군기 개편 관련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관계당국에서 분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